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이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덕기*, 정환윤**, 박종현***, 김수정****

*신성대학교 작업치료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작업치료실

***충남대학교 의공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이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55세 이상의 입원 및 외래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 여가동기, 참여제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뇌졸중 환자의 현재 여가 활동수준은 여가동기 및 참여제약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가동기의 하위영역에서는 사회성, 건강성, 자기-개발성, 학습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참여제약의 하위영역에서는 개인적 제약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성 및 학습성 여가동기와 개인적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0%로 분석되었다.

결론 : 뇌졸중 환자에게 여가 활동 참여는 건강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여가 중재를 위해 뇌졸중 환자의 동기유발과 제약요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뇌졸중, 여가동기, 여가 활동, 참여제약, 활동수준

I. 서 론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한 뇌 조직의 손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중추신경계질환이다(Feigin, Lawes, Bennett, Barker-Collo, & Parag, 2009). 뇌졸중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능장애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과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보인다(Patel et al., 2006). 이러한 참여의 제약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방해한다(Anaby, Jarus, Backman,

& Zumbo, 2010).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에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은 중요하다.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회복과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활동기가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Kim et al., 2009; Kim, Oh, Chung, & Kim, 2013). 최근에는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가를 적용한 중재가 확대되면서 재활동기뿐만 아니라 여가동기(leisure motiv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hoi & Lee, 2013; Lee & Kim, 2010; Lloyd, King, McCarthy, & Scanlan, 2007; Min, 2013). 그러나 여가 활동에 대한

ORCID: Hong, Deok-Gi, <http://orcid.org/0000-0001-5166-055X>

Corresponding author: Kim, Su-Kyoung (kskot@konyang.ac.k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Received 30 April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28 July 2015; Accepted 14 September 2015

동기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Blacker, Broadhurst, & Teixeira, 2008). 특히 뇌졸중 환자들은 수동적인 TV시청, 라디오 듣기와 같은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스포츠나 여행과 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는 제한을 보였다(Nam, 2012).

여가동기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요구나 욕구와 같은 내적인 원동력을 의미한다(Chae & Han, 2002). 또한 여가 활동 참여에 앞서 근본이 되는 요소이며 개인마다 다른 참여 양상을 보인다(Manfredo, Driver, & Tarrant, 1996). 이렇듯 여가동기는 여가 활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특성, 배경과 환경, 수행양상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개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내·외부적 동기에 의해 여가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Dillard & Bates, 2011). 그러므로 여가동기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여가 활동 참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뇌졸중 환자에게 여가 활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all, Corr, Knight, & Lowis, 2007; Desrosiers et al., 2007; Logan, Gladman, Drummond, & Radford, 2003). Desrosiers 등(2007)은 재가 여가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만족감 향상과 우울증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Hartman-Maeir 등(2007)은 여가 활동이 포함된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로 뇌졸중 환자의 여가 참여와 만족도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여가 활동의 참여가 신체·심리적 건강 향상 및 우울증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치료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였다(Blacker et al., 2008; Desrosiers et al., 2007; Hartman-Maeir et al., 2007).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에게 여가 참여에 대한 접근의 선행조건으로 여가 참여를 결정짓는 여가동기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가동기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Jung & Choi, 2008; Kim & Chun, 2009; Lee & Kim, 2010; Lim & Shin, 2006), 시·청각 장애와 지체장애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Choi & Lee, 2013; Min, 2013). 또한 사회복지학, 체육교육학, 관광경영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작업치료학 분야에서의 여가동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작업치료사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 기능적 향상을 위한 중재뿐만 아니라 여가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영역을 고려한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Blacker et al., 2008). 이와 같이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작업치료 분야의 중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 참여의 근본이 되는 여가동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가를 중재로 활용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와 여가 참여제한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여가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대전, 충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며 대학 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125명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자
- 2)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에서 24점 이상인 자
- 3) 5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
- 4)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5)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연구 도구

- 1)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

뇌졸중 환자의 여가 활동 참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를 사용하였다. K-ACS는 미국에서 개발한 Activity Card Sort (ACS)를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수단적 활동 33개, 여가 활동 18개, 사회활동 16개로 총 67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K-ACS는 각 영역별로 현재 활동수준, 과거 활동수준, 참여활동 보유율을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K-ACS는 노인들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퇴직 연령과 향후 활동의 변화, 노인 여가 활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 추이, 노년기 시작 연령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여 55세로 하였다(Lee et al., 2010; Lee, 2007).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특성에 맞게 회복기형 범주를 활용하여 18개 여가 활동들의 현재 활동수준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평가도구의 여가 활동 영역의 신뢰도는 .93이다(Lee et al., 2010).

2) 여가동기 설문지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Cho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여가동기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의 영역에는 기분 전환성, 사회성, 건강성, 자기-개발성 영역이 각 3문항씩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성 영역은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동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는 .80~.94이다(Cho, 2013).

3) 여가 참여계약 설문지

뇌졸중환자의 여가 참여계약이 여가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Kang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여가계약 요소에 관한 설문은 8문항으로 개인적 제약 3문항, 가족적 제약 2문항, 사회적 제약 3문항으로,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는 .86이다.

3. 연구 절차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전, 충남, 전북 지역의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 6기관에서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55세 이상의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앞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언제라도 연구에서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여가동기와 참여계약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거나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K-ACS는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130부로 연구에 적합하지 않는 5부를 제외한 125부(92.5%)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여가 활동수준과 여가동기, 참여계약 간의 관련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가동기와 참여계약이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총 125명중 남성 70명(56.0%), 여성 55명(44.0%)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60~69세 연령대가 49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32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51명(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뇌졸중 발병 전 직업으로 생산직이 44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115명(92.0%)은 무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뇌졸중 후 115명(92.0%)은 운전을 포기하였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이 53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월 생활비는 20~50만원 이하가 53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발병원인은 경색이 80명(6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비측은 왼쪽이 70명(56.0%), 오른쪽이 48명(38.40%), 양측이 7명(5.6%)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은 2년 이상이 46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5)

	Characteristics	<i>n</i>	%
Gender	Male	70	56.0
	Female	55	44.0
Age (yr)	55~59	30	24.0
	60~69	49	39.2
	70~79	38	30.4
	≥ 80	8	6.4
	≤ 6	26	20.8
Time since stroke (mo)	7~12	26	20.8
	13~24	27	21.6
	≥ 25	46	36.8
	Infarction	80	64.0
Type of lesion	Hemorrhage	40	32.0
	Both	5	4.0
Paretic side	Right side	48	38.4
	Left side	70	56.0
	Both side	7	5.6
Education	Uneducated	26	20.8
	Elementary school	29	23.2
	Middle school	19	15.2
	High school	32	25.6
	Above college	19	23.2
Current job	Yes	10	8.0
	No	115	92.0
Past job	Specialized technical	12	9.6
	Official	16	12.8
	Production (farming/industry)	44	35.2
	Services	19	15.2
	Housewife	22	17.6
	etc.	12	9.6
Driving	Yes	10	8.0
	No	115	92.0
Carer	Alone	22	17.6
	Spouse	53	42.4
	Offspring	24	19.2
	Family	26	20.8
Religion	Christianity	35	28.0
	Roman Catholicism	14	11.2
	Buddhism	20	16.0
	Nonreligious	51	40.8
	ect.	5	4.0
Living costs (million won/mo)	<20	47	37.6
	20~50	53	42.4
	50~100	22	17.6
	>100	3	2.4

2. 현재 여가 활동수준, 여가동기, 참여제약 점수

대상자들의 현재 여가 활동수준, 여가동기, 참여제약 점수는 Table 2와 같다. 현재 여가 활동수준은 평균 7.75로 나타났으며, 여가동기 총점은 58.70으로 하위영역인 기분전환은 9.87, 사회성 9.11, 건강성 9.88, 자기-개발성 8.19, 학습성 21.64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참여제약 총점은 23.46으로 하위영역인 개인적 제약은 8.64, 가족제약 6.37, 사회적 제약 8.44로 분석되었다.

3.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대한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의 상관관계

현재 여가 참여수준에 대한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현재 여가 참여수준에 대한 여가동기는 기분전환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그리고 참여제약에서는 총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p<.05$), 하위영역에

서는 개인적 제약 변수만 현재 여가 활동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4.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이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 참여제약이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종속변수는 현재 여가 활동수준을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가동기의 하위항목인 사회성, 학습성 그리고 참여제약의 하위요소인 개인적 제약 변수가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대한 여가동기 및 참여제약의 설명력은 20.0%로 유의한 통계치를 보였다. 그리고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이하의 값으로 분석되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2. Score of Leisure Motivation, Level of Leisure Activity and Restrictions (N=125)

Variables		M	±	SD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7.75	±	3.06
Leisure motivation	Diversion	9.87	±	2.35
	Social	9.11	±	2.40
	Health	9.88	±	2.02
	Self-development	8.19	±	2.46
	Learn	21.64	±	5.76
	Total score	58.70	±	11.53
Participation restrictions	Personally restrictions	8.64	±	1.96
	Familial restrictions	6.37	±	1.52
	Social restrictions	8.44	±	2.51
	Total score	23.46	±	4.72

Table 3. Correlations for Level of Leisure Activity of Leisure Motivation and Restrictions (N=125)

Variable	Leisure motivation						Participation restrictions			
	Total score	Diversion	Social	Health	Self-D	Learn	Total score	Personally	Familial	Social
LCLA	.372**	.145	.376**	.270**	.237**	.332**	.213*	.248**	.123	.131

LCLA: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Self-D: Self-Development

* $p<.05$, ** $p<.01$

IV. 고 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이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여가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뇌졸중 환자의 여가 활동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낮잠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Ko, Kim, Lee, Son, & Bang, 2011; Nam, 2012). 이러한 수동적인 여가 활동은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며 정신·신체적 웰빙(well-being)의 기회가 감소된다(Anaby et al., 2010). 이에 Pierce (2001)는 여가 활동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Desrosiers 등 (2007)은 여가 활동 수준이 향상될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인간은 개인마다 추구하는 삶의 가치, 신념, 양식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길 원한다(Ball et al., 2007). 이렇듯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하는 내적 동기로부터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뇌졸중 환자의 여가 활동수준은 여가동기의 하위영역인 사회성, 건강성, 자기-개발성, 학습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뇌졸중 환자들은 사회적 기능, 건강의 회복, 자기-개발과 학습적 욕구가 클수록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여가 활동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성, 학습성 동기가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Kang (2009)은 뇌병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가 활동 유형은 사회참여적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적 여가 활동을 증가시키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Baek (2013)은 사회적 여가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Jeong과 Lee (2013)는 사회적 여가 활동이 가족 구성원들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은 무의미하게 보내는 일상에서의 소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가 활동을 학습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하였다(Desrosiers et al., 2007; Hartman-Maeir et al., 2007).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은 회복과정에서 본인이 과거에 경험한 활동들에 대해 학습욕구를 보고하였다(Lloyd et al., 2007). 본 연구결과와 같이 뇌졸중 환자에게 사회적·학습성 여가동기는 여가 활동수준에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뇌졸중 환자는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편마비, 감각소실, 보행장애, 인지장애 등이 나타난다(Feigin et al., 2009). 이렇듯 뇌졸중 환자들은 이동성 제한, 편마비, 사지의 기능장애들로 인해 여가 활동에 다시 참여하는데 제한을 보인다(O'Sullivan & Chard, 2010). 본 연구 결과에서 뇌졸중 환자의 여가 활동수준과 참여제약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참여제약이 클수록 여가 활동수준은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제약의 하위영역에서는 개인적 제약과 여가 활동수준이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Kang (2009)과 Nam (2012)의 연구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여가 활동 제약으로는 '몸이 불편해서'와 같은 개인적 제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Hildebrand, Brewer와 Wolf (2012)는 뇌졸중 발병 전과 후의 여가 참여에서 높은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참여

Table 4. Effect on the Level of Leisure Activity of Leisure Motivation and Restrictions (N=125)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Adj. R^2	F	t	VIF
	B	Std. error	β				
Constant	-.471	1.489	—			-.316	
Social	.338	.112	.265			3.011**	1.210
Learn	.114	.047	.214	.200	11.366**	2.443*	1.186
Personally restrictions	.310	.127	.198			2.446*	1.018

Dependent variable: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 $p < .05$, ** $p < .01$

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장애는 여가 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뇌졸중 환자의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성 여가동기, 학습성 여가동기, 개인적 참여 제약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에게 여가 중재 프로그램으로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의 어려움을 지지, 교정, 보상 해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여가 중재에 대한 인프라 형성이 미비하며 장애인의 여가문화와 관련한 여가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뇌졸중 환자들은 정적인 여가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여가 중재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55세부터 80세 이상까지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0.0% 가깝게 60~70대 대상자들로 많은 비율을 보였다. Kim (2009)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았으며, 사회적 자원이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여가 활동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Lee (2014)는 55~64세의 퇴직자들이 65세 이상 퇴직자들보다 여가 활동수준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 활동이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Lee (2003)는 60대 노인의 경우 종교활동, 여행, 문화공연 관람, 동·식물 기르기, 운동 등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보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70~80대의 경우 노화의 영향을 반영하듯 화투, 바둑, 장기, TV 및 라디오 등의 수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연령에 속하는 60대 이상의 대상자들이 연구에 많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로 인해 여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보였다. 이는 정상 노인들과 다르게 신경학적 기능장애가 더욱 감소된 여가 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이 대전, 충남, 전북지역에 분포되어 지역별 교육 및 경제수준, 생활양식에 따른 여가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장애 정도와 연령별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거주 지역과 뇌졸중 환자의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여가 활동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가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가 높을수록 현재 여가 활동수준도 높게 나타났지만 여가 참여제약이 증가할수록 현재 여가 활동수준은 감소하였다. 현재 여가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동기 요소는 사회성 및 학습성 여가동기였으며 여가 참여제약 요소는 개인적 제약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들의 여가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성 및 학습성 여가동기 요소를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 요소를 포함하는 개인적 제약에 대해서는 작업치료 서비스를 통해 여가 활동 참여의 제약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뇌졸중 환자의 여가 참여는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하고 즐기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에게 능동적인 여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Anaby, D., Jarus, T., Backman, C. L., & Zumbo, B. D. (2010). The role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imbalance in explaining well-being.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5, 81-104. doi:10.1007/s11482-010-9094-6
- Baek, E. M. (2013). *Impact of the elderly's social recreation activities on successful aging*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Ball, V., Corr, S., Knight, J., & Lowis, M. J. (2007). An investigation into the leisure occupations of older adults.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0, 393-400. doi:10.1177/030802260707000905

- Blacker, D., Broadhurst, L., & Teixeira, L. (2008).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leisure adaptation with complex neurological disability: A discussion using two case study examples. *Neurorehabilitation, 23*, 313–319.
- Chae, S. A., & Han, S. Y. (2002). The rela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motivation, activity, self 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Psychology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8*(2), 17–31.
- Cho, S. R. (2013). *A study of the aged in the leisure life of leisure motivation and on the leisur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Choi, S. H., & Lee, J. S. (2013). Development and testing of leisure participation model in disabled person by using leisure constraints–negotiation theory.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7*(3), 16–25.
- Desrosiers, J., Noreau, L., Rochette, A., Carbonneau, H., Fontaine, L., Viscogliosi, C., & Bravo, G. (2007). Effect of a home leisure education program after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8*, 1095–1100. doi:10.1016/j.apmr.2007.06.017
- Dillard, J. E., & Bates, D. L. (2011). Leisure motivation revisited: Why people recreate. *Managing Leisure, 16*, 253–268. doi:10.1080/13606719.2011.613624
- Feigin, V. L., Lawes, C. M., Bennett, D. A., Barker-Collo, S. L., & Parag, V. (2009). Worldwide stroke incidence and early case fatality reported in 56 population-based studies: A systematic review. *Lancet Neurology, 8*, 355–369. doi:10.1016/S1474-4422(09)70025-0
- Hartman-Maeir, A., Eliad, Y., Kizoni, R., Nahaloni, I., Kelberman, H., & Katz, N. (2007). Evaluation of a long-term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adult stroke survivors. *Neurorehabilitation, 22*, 295–301.
- Hildebrand, M., Brewer, M., & Wolf, T. (2012). The impact of mild stroke on participation in physical fitness activities. *Stroke Research and Treatment, 2012*, 1–6. doi:10.1155/2012/548682
- Jeong, Y. R., & Lee, S. S. (2013). The basic study on activating the education of leisure activity for the old ag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49–63.
- Jung, W. J., & Choi, S. B. (2008). The study on leisure constraints, leisure motivation, leisure participation of leisure participa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3), 133–142.
- Kang, M. K. (2009). *Potential effects of participation of the handicapped in leisure activities upon their living satisfaction depending on disability type* (Master's thesis). Kaya University, Gimhae.
- Kim, D. H., Oh, M. H., Chung, H. A., & Kim, J. J.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adl, self-esteem, and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1*(4), 59–70. doi:10.14519/jksot.2013.21.4.06
- Kim, H. S., Hwang, Y. O., Yu, J. H., Jung, J. H., Woo, H. S., & Jung H. S. (2009).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activities of living, and quality if life in stroke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7*(3), 41–53.
- Kim, K. J., & Chun, Y. S. (2009). A study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leisure sports activ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3), 19–31.
- Kim, M. Y. (2009). *Factors that influence satisfaction level towards the life by the leisure activity of*

- the users of the senior citizens' leisure welfare fac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
- Ko, Y. K., Kim, H. Y., Lee, S. Y., Son, B. Y., & Bang, Y. S. (2011). Quality of life of elderly chronic stroke according to type of leisure. *Journal of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Korea*, 5(1), 117–124.
- Lee, K. S., & Kim, K. J. (2010).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life styles on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flow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4(2), 59–70.
- Lee, S. H. (2014). Activity engagement of aging retirees in south Korea.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26, 239–242. doi:10.1589/jpts.26.239
- Lee, S. H., Yoo, E. Y., Jung, M. Y., Park, S. H. Lee, J. S., & Lee, T. Y. (2010). Development of the Korean Activity Card Sor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3), 103–117.
- Lee, H. J. (2003).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old people's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leisure experiences during the middle and prime years of their lives*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Lee, H. K. (2007). Age differences i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231–255.
- Lim, J. G., & Shin, J. T. (2006). The study in relation between the motive of leisure activity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0(3), 39–48.
- Lloyd, C., King, R., McCarthy, M., & Scanlan, M. (2007). The association between leisure motivation and recovery: A pilot stud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4(1), 33–41. doi:10.1111/j.1440-1630.2006.00648.x
- Logan, P. A., Gladman, J. R., Drummond, A. E., & Radford, K. A. (2003). A study of interventions and related outcomes 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occupational therapy and leisure therapy for community stroke patients. *Clinical Rehabilitation*, 17, 249–255. doi:10.1191/0269215503cr593oa
- Manfredo, M. J., Driver, B. L., & Tarrant, M. A. (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188–213.
- Min, B. H. (2013). The difference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motivation, leisur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8(4), 111–122.
- Nam, Y. O. (2012). *A comparative study of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leisure activities in stroke patients*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Naju.
- O'Sullivan, C., & Chard, G. (2010). An exploration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post-stroke.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7, 159–166. doi:10.1111/j.1440-1630.2009.00833.x
- Patel, M. D., Tilling, K., Lawrence, E., Rudd, A. G., Wolfe, C. D. A., & McKeivitt, C. (2006). Relationships between long-term stroke disability, handicap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ge and Ageing*, 35, 273–279. doi:10.1093/ageing/afj074
- Pierce, D. (2001). Occupation by design: Dimensions, therapeutic power, and creative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 249–259. doi:10.5014/ajot.55.3.249

Abstract

The Effect of a Leisur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Stroke Patients on Level of Leisure Activity

Hong, Deok-Gi*, M.P.H., O.T., Jeong, Hwan-Yoon**, B.H.Sc., O.T.,
Park, Jong-Hyun***, B.H.Sc., O.T., Kim, Su-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ospital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leisur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effect on level of leisure activity in stroke patients.

Methods : Since 12 November 2014 until 19 December, we have collected a data about participation restrictions, a leisure motivation, and 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 Targeting 125 inpatients/out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stroke that are over 55 years old. For the data analysis, we implemented a descriptive statistic,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study shows that the stroke patients'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 leisur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The leisure motivation in subordinate area, it manifest a correlation that is significant in learn, self-development, a health, and social. And it showed a significant of personally restrictions in subordinate area of participation restrictions. The element that effects on a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it resulted as personal restrictions, learn and social of leisure motivation, the explanation ability was analysed as to 20.0%.

Conclusion : Need to utilize an intervention method to maintain a healthy life in participating a leisure activity for the stroke patients, and it is needed of an approach towards restrictions elements and motivator for the leisure intervention.

Key words : Leisure activity, Leisure motivation, Level of activity, Participation restrictions, Stroke